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주간

한성숙 “베트남·중·일 등 회담… 中企 협력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 장관, 포럼 등 부대행사 참석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면담
“베트남 진출 韓 기업 잘 부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응우옌 덕 텡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에게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등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부대 행사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4일 오전 응우옌 차관과 양자면담을 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베트남 국민경제통합국장을 역임한 응우옌 차관은 기획투자부내 4명의 차관 중 한명으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같이 국가경제 전략 수립과 계획 수립 업무 등을 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한 장관은 “오전에 AX(인공지능 전환), GX(녹색 전환), 바이오, 반도체, 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5개 분과가 정책 연구를 발표한 ‘2025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이 있었는데 베트남 차관께서도 관련 내용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베트남 외에도 이번 행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6번째)이 4일 제주 그랜드 조선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기간 중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페루 와도 양자 회담을 갖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아세안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 중소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정부 간 정책 협력, 기업과 기업 간 교류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5일 예정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1일부터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연계 부대행사에는 이날까지 1만 4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도 제주 ICC와 제주 그랜드 조선, 부영호텔 등에서 중소기업, 혁신기업,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그중 하나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자가 협력해 준비한 글로벌 벤처투자 기관 교류·협력 행사인 ‘2025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in APEC’은 국내 벤처투자 행사 중 단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서밋에는 17개 국에서 77개 해외기관이 방문했고, 국

내에선 60여개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등 총 147개 국내의 기관에서 250여 명이 자리했다.

여기에는 레전드 캐피탈, 버텍스 그로스, 아시아 얼터너티브스 등 글로벌 유력 투자기관들도 함께 했다.

한 장관은 환영사에서 “APEC은 전세계 벤처투자금액의 약 70% 이상이 이뤄지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서, 이번 서밋은 대한민국이 첨단 제조·IT 강국을 넘어 아시아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해외 정부기관과 투자자들이 모인 행사를 계기로 대

한민국 벤처생태계와 APEC 생태계가 더 강한 파트너십으로 긴밀히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정책 분야 최대 싱크탱크인 ‘2025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도 열렸다.

올해 포럼 주제는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중점과제인 혁신성장(Innovative Growth)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혁신, 세계를 연결하다: 닥테크 기반 글로벌 성장전략’이다.

/제주(서귀포)=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근호·박찬화 은탑훈장 등 222점 유공 포상

〈주인정보시스템 대표·케이티씨 대표〉

중기부,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최
AI 기반 中企 혁신제품 전시·홍보

김근호 주인정보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대표, 박찬화 케이티씨(IT기기부품)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수훈했다. 합일한 에이치에너지(에너지 공유플랫폼) 대표는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해 4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올해 혁신대전에선 훈장 3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20점, 총리표창 30점, 장관표창 165점을 포함해 총 222점의 유공 포상이 돌아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이 된 뜻깊은 해로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혁신대전”을 연계해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APEC 경제 협력체와 교류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우수 성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중소기업이 혁신의 엔진이 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

를 만들어 가도록 중기부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혁신대전에선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중점과제(Innovative Growth)와 연계해 제조, 생활 등 4개 섹트로 AI기반의 중소기업 혁신제품 23개사를 전시·홍보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번 기술·경영혁신대전은 이노비즈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혁신의 잠재력과 실질적 기술 경쟁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4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왼쪽 4번째부터)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비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올해 혁신대전은 AI가 이끄는 K-TECH 대표 혁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 기업 경영에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메인비즈협회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서귀포)=김승호 기자

대동그룹, ‘농업·필드 AI 로봇 산업 발전 협의체’ 출범

뉴로메카, 티랩스 등 8개 기업 참여

대동그룹이 주축으로 농업·필드 AI 로봇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

대동그룹은 AI 로봇 전문기업 대동로보틱스와 AI로봇 SW전문기업 대동에이아이랩이 국내 유수의 AI·로봇 기술 기업들과 함께 ‘농업·필드 AI 로봇 산업 발전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대동 계열사 2곳 외에도 뉴로메카, 뉴빌리티, 에이디로보틱스, 코라스로보틱스, 투모로로보틱스, 티랩스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AI 모델 ▲자율주행 및 자동 매핑 ▲플릿 운영 관리 ▲관제 및 원격제



대동그룹은 4일 ‘농업·필드 AI 로봇 산업 발전 협의체’를 출범하고 국내 우수 AI·로봇 기술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대동로보틱스 여준구 대표(가운데)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그룹

어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시설농업·필드로봇용 모바일 플랫폼 ▲로봇 손·팔 등 각 사의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와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대동그룹은 대동로보틱스와 대동에이아이랩을 주축으로 올해 음성인식 및 자율주행 운반로봇을 선보이고, 농업 3대 AI 기술 비전을 선포하는 등 농업·필드 AI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를 농업·필드 AI 로봇에 필요한 로봇 팔·손 등 외부 협업이 필요한 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AI 로봇 분야의 핵심 역할을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기술 연합체를 넘어 국내 로봇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협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각사가 보유한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농업·필드 로봇 산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HS효성첨단소재, ‘ISCC PLUS’ 인증

임진달 대표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HS효성첨단소재는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제도인 ISCC PLUS 인증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CC PLUS는 바이오 기반 및 재활용 원료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투명성을 검증하는 국제 표준 인증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과 기관에서 ESG 경영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료 조달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HS효성첨단소재가 인증받은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Bio-AN) 탄소 섬유 생산 공정은 기존 화학 공정과 큰 차

이가 없어 상용화에 유리하다. 또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로 생산한 탄소섬유 역시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의 핵심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AN)은 유채씨유, 폐식용유 등 식물성, 재활용 자원에서 추출한 바이오 납사를 활용해 생산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대표이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며 “앞으로도 저탄소·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과 생산에 주력해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